

친환경 건축 개념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건물로,
녹색건축 인증 등 국내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계획 요소를 적용하였습니다

조경·개방공간(오픈스페이스) 확보

- 가산퍼블릭은 법정 기준보다 넉넉한 조경과 외부 개방공간(오픈스페이스)을 마련해, 도심에서도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건물 전면과 공용부에 열린 녹지와 보행 친화 공간을 배치해 이용자의 휴식·소통·체류 기능을 강화했으며, 도시 열섬현상 완화와 주변 미기후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공공성'과 '개방성'을 강조한 복합건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 줍니다.

패시브·액티브 기술로 에너지 절감

- 가산퍼블릭은 건물 배치와 외피(건물 바깥부분) 계획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패시브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단열 성능을 강화한 외피 시스템과 고효율 창호를 통해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효율 냉난방 설비, 에너지 절약형 조명(LED), 자동제어 시스템 등 액티브 기술을 도입해 건물 운영 단계의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차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을 함께 줄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본 건물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고려해 설계·설비 여건을 갖추었으며, 건물 에너지 관리 체계와 연계해 향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건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운영·관리 단계에서도 효율화 추진

- 가산퍼블릭은 설비 도입뿐 아니라, 건물 운영과 관리 단계에서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용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동제어와 운영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입주자와 이용자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건물의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 건축 인증 취지에 부합

- 가산퍼블릭은 친환경 건축 개념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건물로, 녹색건축 인증 등 국내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계획 요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업무·산업시설의 친환경 전환을 이끄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으며, 에너지 효율과 환경 가치를 함께 고려한 복합건축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